

전기요금 인상 결정 또 연기

당정, 오늘 2분기 인상 발표 계획 접어... "절차 더 필요"

1분기 5조원대 손실 한전, 자산 매각 등 자구안 제출

오늘(11일)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10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던 중, 관련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결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11일 하루 당정협의회, 한국전력 임시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기 위한 실무 준비가 이어졌다. 한편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서도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린 불가 상수 우려와 국민 여

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한 달 이상 미뤄왔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 논의를 거쳐 2분기 요금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급일 중 정부 내 최종 의사 결정이 내려지면 11일 아침 준비된 관련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고 조정된 전기요금을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면서 '11일 전기요금 인상 발표'는 사실상 미뤄졌다. 이날 오후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새로 임명된 것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마냥 오래 걸리

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 넘는 적자에 이어 올 1분기 5조원대의 손실을 낸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일 결정이 나지는 않겠지만 결정이 아주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남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여당이 한전에 요금 인상 전 강력한 자구안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한전은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한전아트센터 건물의 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을 새로 넣은 자구안을 정부 및 계열사에 제출한 상태. 한 소식통은 "남서울본부와 한전아트센터의 지하에는 변전 시설이 있어 이를 제외한 상부를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여의도 요지에 있는 남서울본부는 자산 가격이 조단위에 달해 한전 자구안 규모가 기존의 '20조+α'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전은 분사 및 계열사의 차감금 이상 간부 직원들이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내용

도 자구안에 담았다. 당장 인상 발표는 다소 미뤄졌지만, 조만간 최종 결정이 이뤄져 2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원가보다 산 전력 공급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1년과 2022년 각각 5조8000억원과 32조6000억원의 대형 적자를 낸 한전의 자금난에 다소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kWh당 7월가량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는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307kWh 사용) 기준으로 매달 2400원 정도를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kWh당 7월 오르면 한전이 올 하반기에 2조원가량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전이 당면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요금 인상 지연으로 1분기에도 추가로 5조원대 손실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인상은 영업

손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192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7조원 늘었다. 부채비율도 459.1%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대로라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이미 오른 것을 빼고도 올해 안에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kWh당 7월가량이 올랐을 때 각 가정은 한 달에 약 20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3만4630원(+1830원), 2인 가구는 4만7천180원(+2300원), 3인 가구는 4만9090원(+2360원), 4인 가구는 5만1010원(+2440원) 등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한전, 나주 에너지밸리 MG 조성...에너지 신기술 실증 가속화

에너지 인프라 구축·미래형 신기술·서비스 테스트 공간 "개방형 플랫폼으로 글로벌 산업환경 대응에 기여할 것"

한국전력은 지난 9일 분사에서 '에너지밸리 MG 조성'을 위한 에너지신사업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에너지밸리 MG 사업'은 나주 에너지밸리를 거점으로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형 신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융복합 형태의 혁신적 신사업 개발 사업이다. 이날 네트워킹 세미나에는 한국전력,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현대엔지니어링, 코하이젠, 빈센, 42dot, 기아, 시너지, 헤르티, 삼성전자, LG 전자 등 12개 기관·기업 관계자들과 서울대 김희집 교수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기업들은 신기술 실증을 위해 ▲친환

경 전원(태양광, 풍력, 수소, 소형 원자력 등) 개발 ▲전력데이터(AMI, 계통정보 등)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를 활용한 규제프리존 구축 ▲미래 신사업을 선도하는 개방형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풍력·SRF·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확대와 생산량 친환경 선박도입, 탄소배출권 P2P거래, 커뮤니티 솔라, 분산자원·수요자원 통합관리 사업 등 에너지밸리 MG(마이크로그리드)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에너지밸리 MG는 어느 기업이나 참여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으로 구성해 국내 에너지 신사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MG 사업분야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협력과 융합에 기반한

국가적 비용 절감과 전력 소비자의 편의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목포 청년창업자 특별보증 전남신보,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목포시와 함께 청년창업자를 위한 특별보증에 나선다. 목포시가 출연한 2억원으로 전남신보가 2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보증은 창업 5년 이하의 청년창업자(만18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목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목포시 이차보전자금과 연계하면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받아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남신보는 보증지원 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전액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료도 1% 이내로 적용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이 특별보증은 목포시의 청년사업자를 위한 적극행정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전남신보는 현재까지 총 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473명 청년사업자에게 약 103억원을 지원, 청년사업자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양수 이사장은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창업 초기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목포시 청년창업자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에너지 절감하고 인센티브 받으세요"

삼성전자, 나주시-한전과 '주민 수요반응 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에너지밸리 MG(Micro-Grid)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내 아파트 약 2000세대를 선정해 주민 DR 서비스를 도입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업의 파트너로서 개별 세대가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 Things Energy)'로 에너지 소비량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삼성전자의 가전 통합관리

플랫폼인 '스마트싱스' 앱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관련 서비스로,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누진 구간 도달 전 전력 사용량을 알아서 줄여주는 'AI 절약모드', 에너지 비효율 알림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절약모드는 삼성전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후드, 제습기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기에 따라 최대

6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여주며, 조명과 스마트 플러그의 전원도 제어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미션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전을 AI 절약모드로 전환하거나 조명이나 스마트 플러그의 사용 전력량을 제어해 사용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미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나주시 주민 DR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약 1년 간 진행되며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박찬우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지난 3월 서울시 주민 DR 사업에 이어 나주시로 사업 협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편리하게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효성그룹, 해수부·수산자원공단과 바다 지킨다

블루카본 사업 추진 MOU

임직원 참여 해안정화 활동도

효성이 '바다식목일'을 맞아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손잡고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에 나선다. 효성그룹(주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은 10일 제주국립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1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효성그룹 임직원 및 화삼어촌계 주민 등 잡피 이식 및 해안정화 활동 참여 인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서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블루카본 사업 추진'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준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치영 효성티앤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바다식목일은 기후변화,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점차 황폐해지는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바다숲을 조성하는 법정 기념일이다. 지난 2012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국가기념일을 제정했으며, 올해 11회를 맞았다. 이번 MOU로 효성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 생태 환경 개선 및 ESG 경영 실천', '잡피숲 블루카본 사업 추진 노력', '해양생태계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바다식목일 대국민 인식 제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현준 회장은 "효성은 글로벌 시민으로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해양 생태계 보전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효성은 지난 4일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

리 연안에서 지주사인 ㈜효성을 비롯한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5개 회사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잡피 이식 및 해안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대표적인 블루카본인 잡피는 해양생태계에 의해 지정된 해양보호생물이다. 잡피는 바다에서 유일하게 꽃을 피우는 해초류로 어류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의 산란장, 서식처, 은신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효성은 지난 12월부터 지주사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3개사가 농어촌생물협력기금을 출연해 한국수산자원공단, 거제시와 함께 잡피숲 보전 활동 사업도 진행하는 등 해양 생태계 보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서 만든 애니메이션 EBS 방영

29일부터...썬애니메이션, 온·오프 연계사업도 추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 콘텐츠기업(썬애니메이션)이 제작한 TV시리즈 애니메이션 '만스터맨션'이 오는 29일 EBS 방영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만스터맨션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CG활용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제작됐다. 작품은 평당 5분 30초 분량의 총 52편 TV 시리즈 3D 애니메이션이다. 만스터맨션은 끝없는 사막에 상대적으로 작은 외형 탓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피라미드, 만스터맨션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그곳의 주인으로 수천 년을 살아오고 있는 만스터 모리와 지리, 그리고 도굴꾼, 침입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이다. 오는 29일부터 매주 월, 화요일 오전 8시 50분(오후 5시25분 재방송)에 EBS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또 썬애니메이션은 만스터맨션 방영과 동시에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만스터맨션 IP 기반의 'VR 미디어 어트랙션 만스터 키즈 플레이'는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체험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96.51(-13.55)
↓ 코스닥	829.74(-6.11)
↑ 금리(국고채 3년)	3.273(+0.017)
↑ 환율(USD)	1324.80(+0.90)